

한국 간호윤리 연구에 대한 양적 분석*

안성희**

I. 서론

우리나라의 간호학 분야의 연구는 1960년 대학원 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연구의 주제는 간호업무분석, 간호 인력의 수요공급, 교육과정 평가, 행정제도 등에 관한 것, 사례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1978년 박사과정이 시작되면서 연구 분야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학회지로는 1953년에 대한간호 창간호가 출간되었고, 1970년에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되면서 간호학회지가 창간되었다. 또한 대한간호학회 산하에 분야별 7개 분과학회가 창립되면서, 1980년대에 각 분야별학회지가 발간되었다.¹⁾ 현재 8개 분야별 학회지가 발간되어 연구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윤리와 관련된 연구논문도 발표되어 왔다.

간호학 연구 중에서 간호윤리 연구가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진 바 없으나, 간호윤리 분야의 연구가 간호학 연구의 주요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간호 환경은 의과학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대상자들의 의료 소비주의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물론 윤리적 다원주의의 경향이 팽배해지는 의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²⁾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간호사들이 대상자를 돌볼 때 의료와 관련된 윤리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론적, 실제적 근거의 추출을 위한 간호윤리 연구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 발전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외국의 경우 *Nursing Ethics*에 초기 11년간 게재된 논문의 주제어, 연구방법, 연구의 이론적 접근법 및 연구대상의 범위와 수준 등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³⁾가

* 본 논문은 2009년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의 발표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성의정학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02-2258-7409. shahn@catholic.ac.kr

1) 김문실 외 7인. 간호의 역사 개정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3 : 169-172.

2) Lutzen K. Nursing Ethics into the next millennium: a context-sensitive approach for nursing ethics. *Nursing Ethics* 1997 ; 4(3) : 218-226.

3) Tschudin V. How nursing ethics as a subject changes: An analysis of the first 11years of publication of *The Journal Nursing Ethics*. *Nursing Ethics* 2006 ; 13(1) : 65-85.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 6월까지 발표된 59편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간호윤리 연구에 대한 분석⁴⁾이 시행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동향이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반영해 주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간호윤리 연구의 문제도 간호사와 간호사가 속한 조직, 간호사와 사회와의 관계를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⁵⁾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었으므로, 2000년 이후 간호윤리 분야에도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호윤리 분야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양적인 분석과 함께 외국의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Bioethics Literature⁶⁾의 연구 주제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하여 향후 간호윤리 연구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저자는 2008년까지 시행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간호윤리 연구의 연도별 편수를 알아보고, 연구주제, 연구방법, 논문의 출처, 연구대상자에 따른 논문의 양적 분석을 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1) 학위논문

대한간호협회 정보검색의 학위논문초록 DB와 검색엔진 KERIS(Korean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 서

비스) 에서 주제어 ‘윤리, 생명, 도덕, 인공유산,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심폐소생술금지, 연명치료중단 및 기타 윤리문제’와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여 석사학위논문 66편, 박사학위논문 9편의 초록을 수집하였다. 학위논문은 간호학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본대학원, 보건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위논문을 포함하였다.

2) 학술지 게재논문

대한간호협회 정보검색의 통합검색과 검색엔진 KERIS,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base(Korean Medical Database)에서 주제어 ‘윤리, 생명, 도덕, 인공유산,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심폐소생술금지, 연명치료중단 및 기타 윤리문제’와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여 18개 학술지의 게재논문 총 110편의 논문의 초록 및 논문집을 수집하였다.

1)과 2)의 논문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학위논문은 1편으로 간주하였고, 2008년까지 발표된 논문 총 185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방법

수집된 논문의 분석은 양적분석으로서 SAS 9.1 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빈도수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 1) 연도별 연구와 실증(empirical), 비 실증 연구 편수 (대상자 선정과 분석의 근거가 제시된 논문을 실증적 연구로 하였다).
- 2) 논문출처, 연구 설계, 대상자에 따른 연도별 편수
- 3) 연구주제의 주요주제, 2주제, 3주제에 따른 연구 편수

4) 김미주.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간호연구 분석. 생명윤리 2000 ; 1(2) : 113-121.

5) Leino-Kilpi H. Guest Editorial: We need more nursing ethics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4 ; 45(4) : 345-346.

6) revised version at may 2009. Kennedy Institute of Ethics, Georgetown University.

- 4) 주요 연구주제, 연구 설계에 따른 실증, 비 실증 연구 편수
- 5) 연구대상자에 따른 연구 설계별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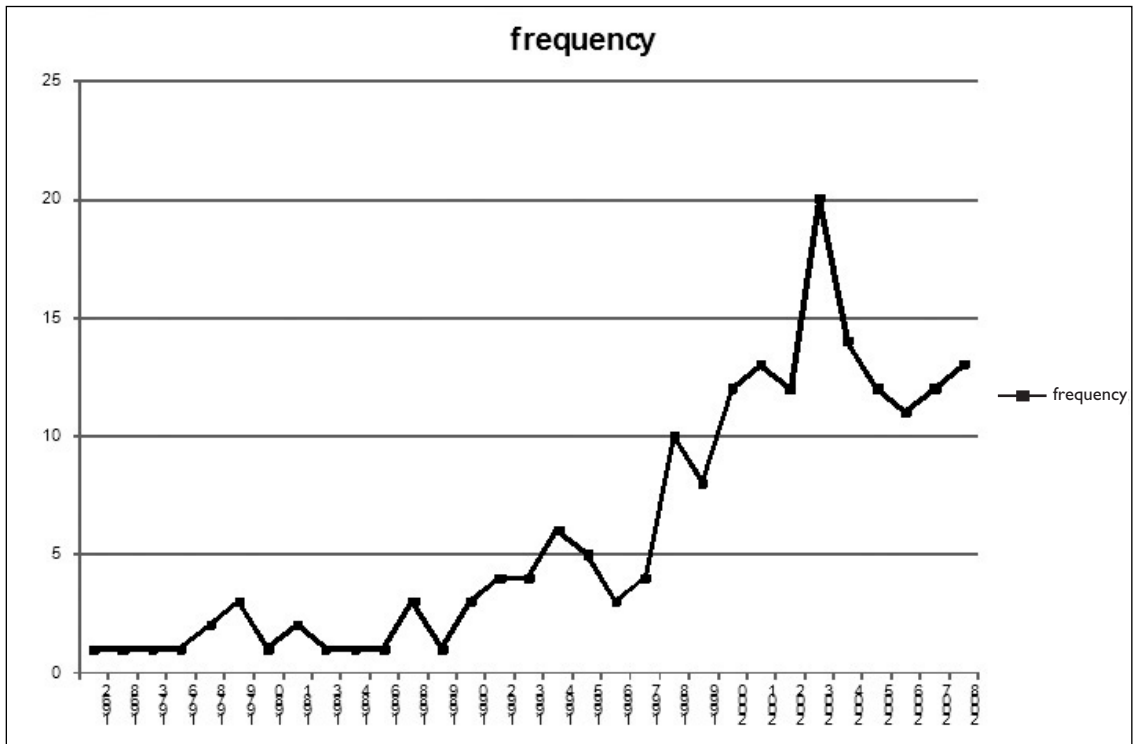
년 이전까지는 연간 5편 이하 이었고, 1998년까지는 연간 10편 이하이었으나, 2000년부터 10~15편을 유지하면서 현저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3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연간 10~15편의 논문이 시행되었다(그림 1).

III. 간호윤리 연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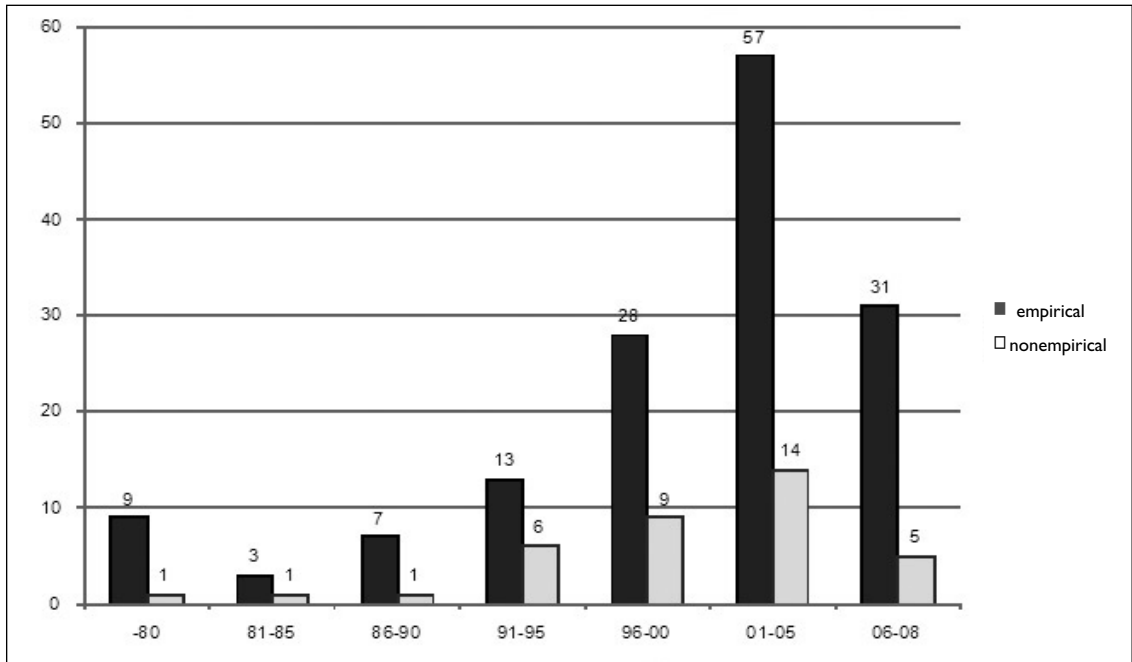
1. 연도별 연구와 실증, 비 실증 연구

간호윤리 논문은 1968년 대한간호에 '직업적 태도 및 간호원의 복장: 간호윤리 정신에 입각하여'라는 소개 글의 형식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로는 1993

실증연구와 비 실증연구의 추세를 보면, 80년 이전까지 실증 9편, 비실증 1편, 81~85년에 실증 3편, 비실증 1편, 86~90년에 실증 7편, 비실증 1편, 91~95년에 실증 13편, 비실증 6편, 96~2000년에 실증 28편, 비실증 9편, 2001~2005년에 실증 57편, 비실증 14편, 2006년~2008년에 실증 31편, 비실증 5편으로, 총 185편 중 80%에 달하는 148편이 실증적 연구였다(그림 2).



〈그림 1〉 Prevalence of Research in Nursing Ethics per Year



〈그림 2〉 Prevalence of Nursing Ethics Research with an Empirical & Non-Empirical Design

2. 논문출처, 연구 설계, 대상자에 따른 연도별 추세

총 185편의 논문 중 40.6%(75편)가 학위논문으로 석사논문 66편, 박사논문 9편이었다. 석사논문은 1980년 이전에 7편, 1981~85년에 2편, 1986~1990년에 5편, 1991~95년에 5편, 1996~2000년에 8편, 2001~2005년에 23편, 2006~2008년에 16편으로 총 66편이었다. 박사논문은 91년부터 시작되었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18종의 학술지로서 대한간호(8편), 대한간호학회지(16편), 간호행정학회지(17편), 생명윤리(5편), 한국의료윤리학회지(22편), 기본간호학회지(7편), 성인간호학회지(10편)가 있고, 그 외 각 분야별 학회지이었다.

1995년 이전에는 주로 대한간호, 대한간호학회지(16편), 간호행정학회지(17편), 중앙의학에 게재되었고, 96년부터 생명윤리(5편), 한국의료윤리학회지(22편)와 10

종의 학회지로 게재 학술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 한국여성철학, 범한철학 등 철학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하였다(표 1).

연구 설계의 종류를 보면 양적연구가 66.5%(128편), 질적연구가 32.4%(60편), 양적, 질적 혼합연구가 1.1%(2편)이었다. 양적연구에서는 서술적 연구가 109편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연구에서는 면담에 의한 연구가 14편이었고 기타 질적연구에는 종설과 소개글이 포함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 이전에는 주로 서술적 조사연구와 소개글이 전부였고, 91년부터 면담, 사례분석을 이용한 질적연구, 유사실험연구, 질적, 양적을 혼합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6년부터는 Q 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1년부터는 현상학적 연구가 시작되어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표 2).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사 대상의 연구가 48.6%(90편)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와 관련 없는 연구(31편), 간호학생(23편), 지역주민(17편), 보호자(6편), 환자(5편) 순이

었다. 96년을 기점으로 연구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졌고, 환자보호자 대상의 연구가 시작되었다(표 3).

3. 연구의 주요주제, 2주제, 3주제

연구주제의 분류는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Bioethics Literature⁷⁾의 분류체계에서 간호윤리, 의료윤리 관련 주제어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초록 및 논문에서 추출된 주제어를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정리된 주제의 수는 총 39종이었으며, 이중에서 주요주제로 25종, 2주제로 23종, 3주제로 10종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주요주제 25개 중 간호전문직 윤리 관련 주제로 쓰여진 논문이 25.4%(47편)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전문직 윤리관련 주제는 간호윤리, 윤리적 가치관, 전문직관, 전문직 윤리, 윤리의식, 직업적 태도, 책임, 윤리적 돌봄, 윤리성, 도덕성, 정체성의 주제어가 포함되었다.

이어서, Do Not Resuscitate(DNR)(21편), 윤리적 딜

〈표 1〉 Prevalence of Nursing Ethics Research by Years with Thesis and Journals N(%)

Reference	-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08	Total
Master thesis	7 (70.0)	2 (50.0)	5 (62.5)	5 (26.3)	8 (21.6)	23 (32.4)	16 (44.4)	66 (35.7)
Doctoral dissertation	0	0	0	3 (15.8)	0	5 (7.0)	1 (2.8)	9 (4.9)
대한간호	1 (10.0)	1 (25.0)	1 (12.5)	4 (21.1)	1 (2.7)	0	0	8 (4.32)
대한간호학회지	0	0	1 (12.5)	3 (15.8)	5 (13.5)	5 (7.0)	2 (5.6)	16 (8.6)
간호행정학회지	0	0	0	2 (10.5)	4 (10.8)	8 (11.3)	3 (8.3)	17 (9.2)
생명윤리	0	0	0	0	1 (2.7)	4 (5.6)	0	5 (2.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0	0	0	0	2 (5.4)	14 (19.7)	6 (16.7)	22 (11.9)
기본간호학회지	0	0	0	0	3 (8.1)	4 (5.6)	0	7 (3.8)
성인간호학회지	0	0	0	0	5 (13.5)	3 (4.2)	2 (5.6)	10 (5.4)
한국간호교육학회지	0	0	0	0	0	1 (1.4)	0	1 (0.5)
가정간호학회지	0	0	0	0	2 (5.4)	0	0	2 (1.1)
여성건강간호학회지	0	0	0	0	1 (2.7)	0	0	1 (0.5)
정신간호학회지	0	0	0	0	2 (5.4)	0	0	2 (1.1)
한국호스피스/완화학회지	0	0	0	0	0	0	1 (2.78)	1 (0.5)
중앙간호학회지	0	0	0	0	0	0	1 (2.78)	1 (0.5)
임상간호연구	0	0	0	0	1 (2.7)	0	2 (5.6)	3 (1.6)
중양의학	2 (20.0)	1 (25.0)	1 (12.5)	2 (10.5)	1 (2.7)	0	0	7 (3.8)
최신의학	0	0	0	0	1 (2.7)	1 (1.4)	0	2 (1.1)
한국여성철학	0	0	0	0	0	1 (1.4)	0	1 (0.5)
범한철학	0	0	0	0	0	2 (2.8)	2 (2.6)	4 (2.2)
Total	10	4	8	19	37	71	36	185 (100.0)

7) revised version at may 2009, Kennedy Institute of Ethics, Georgetown University

레마와 갈등(19편), 장기이식과 기증(17편), 인공임신중절(15편), 안락사(12편), 연명치료중단(7편)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간호윤리교육 관련 연구는 6편, 간호윤리강

령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제2주제어로 '경험, 지식, 태도'를 사용한 연구가 13.5%(25편)로 가장 많았고, 간호전문직 윤리가 14편,

〈표 2〉 Prevalence of Nursing Ethics Research by Research Design and Years

N(%)

Research design	-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08	Total
Quantitative	9 (90.0)	3 (75.0)	7 (87.5)	11 (57.9)	21 (56.8)	48 (67.6)	24 (66.7)	123 (66.5)
Descriptive survey	9 (90.0)	3 (75.0)	7 (87.5)	10 (52.6)	18 (48.6)	40 (36.3)	22 (61.1)	109 (58.9)
Prospective survey	0	0	0	0	1 (2.7)	1 (1.4)	0	2 (1.1)
Methodological study	0	0	0	0	1 (2.7)	5 (7.4)	0	6 (3.2)
Quasi-experimental study	0	0	0	1 (5.3)	1 (2.7)	2 (2.8)	2 (5.6)	6 (3.2)
Qualitative	1 (10.0)	1 (25.0)	1 (12.5)	8 (42.1)	16 (43.2)	23 (32.4)	12 (33.3)	60 (32.4)
Interview	0	0	0	2 (10.5)	3 (8.1)	7 (9.9)	2 (5.6)	14 (7.6)
Content analysis	0	0	0	0	2 (5.4)	1 (1.4)	3 (8.3)	6 (3.2)
Participative observation	0	0	0	0	0	1 (1.4)	0	1 (0.5)
Case study	0	0	0	1 (5.3)	2 (5.4)	1 (1.4)	0	4 (2.2)
Phenomenological study	0	0	0	0	0	1 (1.4)	2 (5.6)	3 (1.6)
Q methodology	0	0	0	0	6 (16.2)	0	2 (5.6)	8 (4.3)
Other qualitative	1 (10.0)	1 (25.0)	1 (12.5)	4 (21.1)	3 (8.1)	11 (15.5)	3 (8.3)	24 (13.0)
Triangulation method	0	0	0	1 (5.3)	0	1 (1.4)	0	2 (1.1)
Total	10	4	8	19	37	71	36	185 (100.0)

〈표 3〉 Prevalence of Nursing Ethics Research by Subjects and Years

Subject	-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08	Total
Not applicable	1 (10.0)	1 (25.0)	1 (12.5)	4 (21.1)	6 (16.2)	13 (18.3)	5 (13.9)	31 (16.8)
Nursing staff	1 (10.0)	1 (25.0)	5 (62.5)	11 (57.9)	13 (35.1)	39 (54.9)	20 (55.6)	90 (48.6)
Nursing student	1 (10.0)	0	0	3 (15.8)	7 (18.9)	6 (8.5)	6 (16.7)	23 (12.4)
Medical student	0	0	0	0	0	0	1 (2.8)	1 (0.5)
Medical personnel	0	0	0	0	3 (8.11)	4 (5.63)	1 (2.8)	8 (4.3)
Patient	2 (20.0)	1 (25.0)	0	0	1 (2.7)	1 (1.4)	0	5 (2.7)
Care giver	0	0	0	0	1 (2.7)	4 (5.6)	1 (2.8)	6 (3.2)
Layman	4 (40.0)	1 (25.0)	2 (25.0)	1 (5.3)	5 (13.5)	3 (4.2)	1 (2.8)	17 (9.2)
Nursing faculty	1 (10.0)	0	0	0	1 (2.7)	0	0	2 (1.1)
Undergraduate (general)	0	0	0	0	0	1 (1.4)	1 (2.8)	2 (1.1)
Total	10	4	8	19	37	71	36	185 (100.0)

일반적 윤리가 13편이었다. 결의론, 간호활동, 의료행위, 말기환자 간호, 여성윤리, 부담감, 간호연구, 자원

활용, 호스피스, 장기적출은 제2주제로만 사용되었다. 제3주제로만 사용된 것은 간호거부였다(표 4).

〈표 4〉 Classification of Topic of Research

topic	1st topic	2nd topic	3rd topic
Ethics, general	4 (2.2)	13 (7.0)	1 (0.5)
Ethics, nursing profession	47 (25.4)	14 (7.6)	3 (1.6)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ethics	6 (3.2)	2 (1.1)	1 (0.5)
Code of nursing ethics	1 (0.5)	1 (0.5)	0
Ethical decision making	4 (2.2)	9 (4.9)	2 (1.1)
Ethical dilemma/ conflict	19 (10.3)	4 (2.2)	0
Ethical sensitivity	2 (1.1)	0	0
Ethical distress	3 (1.6)	0	0
Ethical(moral) judgment	5 (2.7)	4 (2.2)	0
Moral development	3 (1.6)	0	0
Casuistry	0	1 (0.5)	0
Informed consent	1 (0.5)	1 (0.5)	
Biomedical ethics	6 (3.2)	2 (1.1)	1 (0.5)
Patient(life) respect	2 (1.1)	0	0
Law in bioethics	1 (0.5)	0	1 (0.5)
Artificial abortion	15 (8.1)	0	0
Organ transplantation/donation	17 (9.2)	3 (1.6)	0
Brain death	3 (1.6)	9 (4.9)	0
Euthanasia	12 (6.5)	0	0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7 (3.8)	0	0
Do Not Resuscitate	21 (11.4)	0	0
Attitude toward death, suicide	2 (1.1)	1 (0.5)	0
Clinical trial	1 (0.5)	0	0
Job satisfaction, stress	0	4 (2.2)	2 (1.1)
Nursing practice, Medical practice	0	3 (1.6)	2 (1.1)
End of life care	0	5 (2.7)	0
Feministic ethics	0	1 (0.5)	0
Experience, Knowledge, attitude	0	25 (13.5)	11 (5.9)
Preference for a boy	1 (0.5)	0	0
Burden	0	1 (0.5)	0
Refuse nursing	0	0	1 (0.5)
Nursing research	0	1 (0.5)	0
Resource use	0	1 (0.5)	0
Hospital ethics committee	1 (0.5)	0	0
Research ethics	1 (0.5)	0	0
Hospice	0	1 (0.5)	0
Organ extraction	0	1 (0.5)	0
Total	185	107	25

생명의료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86년부터 안락사를 시작으로, 91년부터 연명치료 중단과 죽음태도, 자살, 96년부터 생명의료윤리, 장기기증, DNR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는 윤리적 민감도와 고뇌, 뇌사, 병원윤리위원회, 2006년부터는 생명존중, 임상시험, 연구윤리가 주제로 출현하였다(표 5).

〈표 5〉 Prevalence of Nursing Ethics Research by 1st Research Topic and Years

1st research topic	-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08	Total
Ethics, general	0	0	0	0	2 (5.4)	2 (2.8)	0	4 (2.2)
Ethics, nursing profession	3 (30.0)	2 (50.0)	3 (37.5)	10 (52.6)	6 (16.2)	17 (23.9)	6 (16.7)	47 (25.4)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ethics	1 (10.0)	0	0	1 (5.3)	1 (2.7)	1 (1.4)	2 (5.6)	6 (3.2)
Code of nursing ethics	0	0	0	0	1 (2.7)	0	0	1 (0.5)
Ethical decision making	0	0	0	1 (5.3)	0	2 (2.8)	1 (2.8)	4 (2.2)
Ethical dilemma/ conflict	0	0	1 (12.5)	4 (21.1)	4 (10.8)	6 (8.5)	4 (11.1)	19 (10.3)
Ethical sensitivity	0	0	0	0	0	1 (1.4)	1 (2.8)	2 (1.1)
Ethical distress	0	0	0	0	0	2 (2.8)	1 (2.8)	3 (1.6)
Ethical(moral) judgment	0	0	1 (12.5)	0	1 (2.7)	3 (4.2)	0	5 (2.7)
Moral development	0	0	0	0	1 (2.7)	0	2 (5.6)	3 (1.6)
Informed consent	0	0	1 (12.5)	0	0	0	0	1 (0.5)
Biomedical ethics	0	0	0	0	1 (2.7)	4 (5.6)	1 (2.8)	6 (3.2)
Patient(life) respect	0	0	0	0	0	0	2 (5.6)	2 (1.1)
Law in bioethics	0	0	0	0	0	1 (1.4)	0	1 (0.5)
Artificial abortion	6 (60.0)	2 (50.0)	1 (12.5)	1 (5.3)	4 (10.8)	1 (1.4)	0	15 (8.1)
Organ transplantation/ donation	0	0	0	0	8 (21.6)	6 (8.5)	3 (8.3)	17 (9.2)
Brain death	0	0	0	0	0	3 (4.2)	0	3 (1.6)
Euthanasia	0	0	1 (12.5)	0	4 (10.8)	6 (8.5)	1 (2.8)	12 (6.5)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0	0	0	1 (5.3)	0	5 (7.0)	1 (2.8)	7 (3.8)
Do Not Resuscitate	0	0	0	0	3 (8.11)	10 (14.1)	8 (22.2)	21 (11.4)
Attitude toward death, suicide	0	0	0	1 (5.3)	0	0	1 (2.8)	2 (1.1)
Clinical trial	0	0	0	0	0	0	1 (2.8)	1 (0.5)
Preference for a boy	0	0	0	0	1 (2.7)	0	0	1 (0.5)
Hospital ethics committee	0	0	0	0	0	1 (1.4)	0	1 (0.5)
Research ethics	0	0	0	0	0	0	1 (2.8)	1 (0.5)
Total	10	4	8	19	37	71	36	185 (100.0)

4. 주요 연구주제, 연구 설계에 따른 실증, 비실증 연구

1) 주요 연구주제 중 간호전문직 윤리에 대한 실증연구가 20.9%(31편)로 가장 많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실증연구는 각각 4편, 19편이었

다. 윤리적 민감도와 고뇌, 윤리판단, 도덕성 발달에 대한 실증연구는 13편이었고, 이에 대한 비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 동의에 대해서는 비실증 연구가 1편 시행되었고, 생명윤리가 7편, 생명존중이 2편의 실증연구가 있었다. 인공임신중절이 14편, 장기이식, 기증이 13편, 안락사 11편, DNR에 대한 16편의 실증연구가

〈표 6〉 Prevalence of Nursing Ethics Research by 1st Research Topics with an Empirical/Non Empirical Design

1st research topics	empirical	non empirical
Ethics, general	1 (0.7)	3 (8.1)
Ethics, nursing profession	31 (20.9)	16 (43.2)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ethics	6 (4.1)	0
Code of nursing ethics	0	1 (2.7)
Ethical decision making	3 (2.0)	1 (2.7)
Ethical dilemma/ conflict	18 (12.2)	1 (2.7)
Ethical sensitivity	2 (1.4)	0
Ethical distress	3 (2.0)	0
Ethical(moral) judgment	5 (3.4)	0
Moral development	3 (2.0)	0
Informed consent	0	1 (2.7)
Biomedical ethics	5 (3.4)	1 (2.7)
Patient(life) respect	2 (1.4)	0
Law in bioethics	1 (0.7)	0
Artificial abortion	14 (9.5)	1 (2.7)
Organ transplantation/donation	13 (8.8)	4 (10.8)
Brain death	2 (1.4)	1 (2.7)
Euthanasia	11 (7.4)	1 (2.7)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7 (4.7)	0
Do Not Resuscitate	16 (10.8)	5 (13.5)
Attitude toward death, suicide	2 (1.4)	0
Clinical trial	1 (0.7)	0
Preference for a boy	1 (0.7)	0
Hospital ethics committee	0	1 (2.7)
Research ethics	1 (0.7)	0
Total	148	37

있었다. 죽음태도와 자살에는 2편, 임상시험은 1편, 연구윤리에는 1편의 실증연구가 있었고, 비실증연구는 없었다(표 6).

2) 연구 설계에서 양적연구의 79.7%(118편)가 실증연구로 가장 많았고, 질적연구 중 실증연구가 18.9%(28편), 비실증연구가 83.8%(31편)이었다(표 7).

5. 연구대상자에 따른 연구 설계

실증연구에서는 간호사 대상이 55.4%(82편)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생 대상이 15.5%(23편), 지역주민 대상이 11.5%(17편)이었다. 환자 대상은 3.4%(5편), 보호자 대상은 4.1%(6편)에 불과하였다.

양적연구에서는 간호사 대상이 59.7%(74편)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생 대상이 15.3%(19편), 지역주민 대상이 13편, 환자 대상이 4편, 보호자 대상이 1편이었다.

질적 연구에서 간호사 대상이 25.4%(15편), 간호학생

대상이 6.8%(4편), 지역주민 대상이 6.5%(4편), 환자 대상이 1.7%(1편)이었다(표 8).

IV. 고찰

의료윤리 관련 간호윤리 연구에 대한 양적분석의 결과를 보면, 90년대 전반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 편수의 증가,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자의 확대 및 연구 설계의 다양화로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미주(2000)의 논문분석에서와 동일한 추세를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에서 2005년에 71편으로 논문의 수가 가장 많았고, 특히 2003년에 20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내외에서 생명윤리 및 연구와 관련된 윤리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와 비실증연구의 추세를 보면, 총 185편 중 80%에 달하는 148편이 실증적 연구였고, 연

〈표 7〉 Prevalence of Nursing Ethics Research by Research Design with an Empirical/Non Empirical Design

Research Design	Empirical	Non empirical	Total
Quantitative	118 (79.7)	6 (16.2)	124 (67.0)
Descriptive survey	106 (71.6)	3 (8.1)	109 (58.9)
Prospective survey	2 (1.4)	0	2 (1.1)
Methodological study	4 (2.7)	3 (8.1)	7 (3.8)
Quasi-experimental study	6 (4.1)	0	6 (3.2)
Qualitative	28 (18.9)	31 (83.8)	59 (31.9)
Interview	11 (7.4)	3 (8.1)	14 (7.6)
Content analysis	4 (2.7)	2 (5.4)	6 (3.2)
Participative observation	1 (0.7)	0	1 (0.5)
Case study	2 (1.4)	2 (5.4)	4 (2.2)
Phenomenological Study	2 (1.4)	0	2 (1.1)
Q-methodology	8 (5.4)	0	8 (4.3)
Other qualitative	0	24 (64.9)	24 (13.0)
Triangulation method	2 (1.4)	0	2 (1.1)
Total	148	37	185 (100.0)

〈표 8〉 Prevalence of Nursing Ethics Research by Subjects with a Research Design N(%)

Subjects	Empirical	Non-Empirical	Quantitative	Qualitative	Triangulation
Not applicable	3 (2.0)	28 (75.7)	3 (2.4)	28 (47.5)	
Nursing Staff	82 (55.4)	8 (21.6)	74 (59.7)	15 (25.4)	1 (50.0)
Nursing Student	23 (15.5)	0	19 (15.3)	4 (6.3)	
Medical Student	1 (0.7)	0	1 (0.8)	0	
Medical Personnel	7 (4.7)	1 (2.7)	6 (10.5)	2 (3.4)	
Patient	5 (3.4)	0	4 (3.2)	1 (1.7)	
Care giver	6 (4.1)	0	1 (0.8)	4 (6.8)	1 (50.0)
Layman	17 (11.5)	0	13 (10.5)	4 (6.8)	
Nursing Faculty	2 (1.4)	0	2 (1.6)	0	
Undergraduate (general)	2 (1.4)	0	1 (0.8)	1 (1.7)	

구편수가 가장 많았던 2001~2005년에 실증 57편, 비실증 14편이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생명윤리관련 9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1990년~2003년까지의 의료계 윤리관련 논문 4029편 중 435편이 실증 연구였고 435편 중 39.5%(145편)가 Nursing Ethics에 게재된 간호학 관련 실증연구로 의학논문에 비해 실증연구가 많은 편이었다.⁸⁾ 간호윤리에서의 실증연구는 간호과학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하며,⁹⁾ 실증연구의 결과는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실무의 윤리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윤리이론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¹⁰⁾ 이러한 실증연구의 배경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의학논문과 비교한 통계적 비율이 제시된 것은 없지만, 실증연구가 80%를 차지한 것은 국제적 추세와 더불어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학위논문이 총 185편의 논문 중 40.6%(75편)를 차지하였고 석사논문 66편, 박사논문 9편이었다. 이와 같이 학위논문 중 박사논문의 편수가 적은 것은 간호윤리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한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태인데,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위해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과 양질의 논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과정으로 보아¹¹⁾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점이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윤리 분야 학술지 4종과 간호학 관련 학술지를 포함한 18종으로 각각 27편, 2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와 같이 논문게재 학술지의 구성이 간호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술지가 포함된 것은 간호윤리를 전공하고 교육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Leino-kilpi(2004)의 주장과 같이 연구자들이 다

8) Borry P, Schotsmans P, Dierickx K. Empirical research in bioethical journal: a quantitative analysis, J. Med. Ethics 2006 ; 32 : 240-245.

9) Leino-kilpi H. 앞의 글. 2004 : 345-346.

10) Casterle BD, Grypdonck M, Cannaearts N. Empirical ethics in action: lessons from two empirical studies in nursing ethics.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2004 ; 7 : 31-39.

11) Tschudin V. 앞의 글. 2006 : 65-85.

소는 우연한 기회에 다른 연구의 부수적으로 혹은 일시적 관심으로 간호윤리분야를 주제로 선택하여 시행한 연구 결과를 자신의 전공 관련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간호윤리학을 전공 혹은 교육하는 연구자들이 1996년부터 생명윤리,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2001년부터 한국여성철학, 범한철학 등 철학분야의 학술지에 투고하기 시작한 것은 간호 분야의 윤리문제에 대해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설계에서는 양적연구 66.5%(128편), 질적연구 32.4%(60편)으로 주로 양적연구가 이루어졌고, 양적, 질적 혼합연구는 1.1%(2편)에 불과하였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의 근거기반이 되므로, 질적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이에 대한 연구방법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¹²⁾ 아울러 질적, 양적연구를 혼합한 triangulation stud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연구의 대상을 보면, 주로 간호사(48.6%(90편), 간호학생(23편)이었고, 96년을 기점으로 연구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져서 환자(5편), 보호자(6편) 대상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은 우선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때문으로 본다. 앞으로는 실제 간호현장에서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국내의 간호윤리 연구의 주제는 크게 전문직윤리, 윤리적 딜레마, 장기이식, 안락사,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심폐소생술 등이었다. 인공임신중절이 주요주제로 조사되었으나, 거의 지식, 경험, 태도에 대한 연구였다. 간호 전문직 윤리와 관련된 개념 즉 간호윤리, 윤리적 가치관, 전문직관, 전문직 윤리, 윤리의식, 직업적 태도, 책임, 윤리적 돌봄, 윤리성, 도덕성, 윤리적 정체성 등으로 이

에 대한 지식, 경험, 태도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개별 윤리문제에 대한 연구도 지식, 태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추세를 지양하여 향후 시행되는 연구는 간호현장을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는 접근으로 환자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간호윤리교육을 주요주제, 2주제, 3주제로 한 연구는 총 9편으로 저조한 편이다. 간호사는 환자간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의 습득은 물론 간호 실무에의 윤리적 접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¹³⁾ 따라서, 향후 간호전문직의 변화를 인식하고 간호윤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간호윤리강령을 주요주제, 2주제로 한 연구는 2편에 그치고 있다.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간호윤리강령의 개정과 윤리선언, 윤리지침의 개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을 주제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 6개국에서 간호윤리강령에 대한 협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¹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탐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간호윤리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적 윤리 문제를 다루고, 윤리적 간호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론적, 실제적 근거의 추출을 위한 연구로 변화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간호연구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주제의 선택 영역이 다양화되고 각 영역별 실증연구와 이론연구가 균형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Bioethics Literature의 분류체계의 key word list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의료윤리와 관련된 한국 간호윤리 연구의 주제

12) Borry P, Scholtsmans P, Dierickx K. 앞의 글. 2006 : 240-245.

13) Woodruff AM. Becoming a nurse: the ethical perspective. Int. J. Nurs. Stud 1985 : 22(4) : 295-302.

어 범위의 다양성과 심도가 부족하다. 또한 실증연구가 80%를 차지하며 이중에서 간호전문직윤리와 관련된 주제가 25%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임상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근거로 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의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Nursing Ethics의 전 편집자인 Tschudin은 미래 간호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노인 간호, 가정에 있는 장기 환자 간호, 유전학, 유전상담과 관련된 윤리문제,¹⁵⁾ 갈등, 전쟁 분야에서 간호윤리의 새로운 목소리가 요구된다¹⁶⁾고 하였다. 또한 간호윤리의 이론적 개발은 실증적 연구의 기초가 되며, 의료윤리의 여러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¹⁷⁾

둘째, 간호윤리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윤리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간호교육자는 물론 간호윤리 연구자의 후진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금 조성에 대한 노력과 아울러 간호윤리 분야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국제적 협력과 다 학제적 연구의 확충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국내의 몇몇 간호윤리 연구자들은 Nursing Ethics 등 해외학술지의 게재와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나, International Centre for Nursing Ethics와 같은 working group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한 국제교류와 협력연구를 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의사, 간호사, 윤리철학자, 법률가 등 다 학제적 팀을 이루어 의료윤리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간호윤리 분야의 학위논문이 학술지 게재를 통해 공유되어야 하겠다.

대학원 과정에서 배출된 학위논문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시적 전망과 아울러 각 연구주제별 연구 추세에 대한 분석연구를 제언한다. **ME**

색인어

간호윤리, 생명윤리, 간호연구

14) Leino-kilpi H. 앞의 글. 2004 : 345-346.

15) Kirk M. Genetics, ethics and education: considering the issues for nurses and midwives. Nursing Ethics 2000 ; 7(3) : 215-226.

16) Tschudin V. The future nursing voice.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2003 ; 11(4) : 413-9.

17) Lutzen K. 앞의 글. 1997 : 218-226.

Quantitative Analysis of Ethics Research within the Korean Nursing Community

AHN Sung-Hee*

◉ **Abstract**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volution and nature of ethics research within the Korean nursing community.

Method: For this retrospective quantitative study, articles related to biomedical issues published by nurses or nursing students in peer-reviewed Korean journals and master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written in Korea from 1968 to 2008 were collected via the databases at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The Korean Medical Database.

Results: In total, 110 were articles published and 75 master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presented. Of these, 148 (80%) studies used an empirical design. The period 2001-2005 presented a higher number of studies (n=71, 38.4%). Eighteen peer-reviewed journals in the field of nursing published ethical studies. The main topics of research were professional ethics for nurses (25.4%, n=47), do-not-resuscitate orders (n=21), and ethical dilemmas (n=19). Most empirical studies employed quantitative designs (79.7%, n=118).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important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ethics research, including the diversity of research topics, subjects, and design, the selection and convergence of research topics, researcher training, and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 **Keywords**

Nursing ethics, Bioethics, Nursing research

*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